

어머니 3:요조숙녀

윤석남



윤석남(1939년생)은 성균관대학
영문과를 중퇴하고 미국 PRATT
Institute Graphic Center에서 판화,
드로잉, 유화등을 작업했다. 그동안
「인간전」(1982~'85) 「시월모임전」
(1985~)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전 : 우리 불꽃을 트자」(1988),
「여성과 현실전」(1982~92)
「현대미술의 꽃전」(1993) 등에 참여해
왔으며 1982년 문예진흥원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1993년 금호미술관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또 하나의 문화」 동인,
「여성미술연구회」 회원, 「민미협」 회원,
「현실문화연구」 운영위원으로 있다.

서울 서초구 압곡동 41-4

TEL 577-6530/535-6878(작업실)

여성에게 예술에게, 온전한 하나에게...

윤석남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그렸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어머니가 시작하도록 해준 셈이 된다. 마치 어머니로부터 처음 생명을 부여받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작가로서의 성장과정에도 어머니의 자리는 근원적이다. 생명의 소중함, 삶의 의미, 인간에 대한 이해, 혹은 애정, 이 모두의 자리에 어머니는 늘 계시다. 오늘, 그 어머니가 이 땅에 우리에게 '여성미술'의 전사(前史)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윤석남의 사십이라는 세월을 지나 자신의 세월의 모습으로 다시 그려졌다. 어머니는 고스란히 자신을 여성으로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 기쁨과 절망, 희망을 삶의 깊이로, 넓이로 보듬어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삶의 한 가운데 있는 보편의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몸 속에 모든 여성의 역사를 모아내는 기운이었다. 슬한 모순과 갈등을 온 몸으로 겪어낸 어머니에게 삶이란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소중하게 살아나는 생명력과는 같은 것이 아닐까. 많은 여느 어머니의 삶처럼 그녀의 어머니도, 가난과 굴종의 현실적 고통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거두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시대의 얼굴로 겹쳐지는 것이다. 바로 그 맥락에서 윤석남은 자신의 작업에 출발선을 그었다.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기로 하였다. 선택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중략)

그녀의 창작방식은 고정적이지 않다. 아크릴 작업이든 드로잉이든, 설치든 간에 형식과 매체에 구애받음이 없이 작업한다. 그 형식적 자유로움이 형상을 그릴 때는 차분한 사실적 묘사에 힘을 쏟는다. 일러스트레이션적인 맛을 살리면서 동시에 연필의 터치를 따스한 정서로 드러내 주는 드로잉 작업은 대체로 어머니의 강인함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말하고자 할 경우의 방식이 된다. 폐기용 나무를 살린 나무설치 작업은 공간의 해석과 증폭된 내용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작가로서의 윤석남을 지켜볼 때 강한 신뢰감이 생긴다. 그것은 그녀의 세월이, 그녀의 삶이 작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대개의 작가들이 그러한 확신을 안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도 윤석남이 여성미술이라는 지점에서 자신의 시작을 말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어쩔 수 없이 여성 주제는살아가는 세월이 가르쳐주는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주제에 대한 절박함이 세월의 무게와 깊이에 힘입어 더욱 강하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나 역시도 내가 지내온 세월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여성과 사랑이 지금의 미술문화의 건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시에 그녀에게 잠재해 있는 실험정신에 대한 열망이 곧 그녀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된다. 윤석남의 여성과 사랑이 미술에 있고, 삶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박신의(미술평론가) **파인아트**



나무위에 아크릴 1993년 150 x 180cm